

10<sup>th</sup>

평화재단

10주년

여기 한 끼 작고 소박한  
누군가를 위해 차려진 밥상

따뜻한 밥 한술 떠먹여주지 못하고  
백두산 숲속과 압록강 가에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탈북 난민들  
가난과 억압이란 국경을 뛰어넘기엔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식어가는 방구들 온기라도 보태주자고  
배에 실어 보낸 털목도리 털모자  
그 항구에서 떠올렸던 북한 동포들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분단을 허물기엔  
우리의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저 밥은 가슴 속 응어리이며  
저 국은 기억 속 눈물입니다.  
어느 날 찾아올 님을 기다리며  
그 아픈 기억과 성찰은  
10여년을 한마음으로  
밥을 차리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맞이할 통일을 위해  
간절히 준비해 온 따뜻한 밥상을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 밥은 분단으로 상처받은 7천만 겨레  
누구에게나 차려져야 함을  
저 밥은 갈등과 원한으로 등 돌려온 민족에게  
화해를 가져옴을  
저 밥은 남북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이 스며있음을



밥상

인사말

- 다시 첫 마음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법륜스님 08
- 해외인사 - 축하말 및 사진 수록 08

재단과 함께 한 사람

- 사랑과 자비만이 화해와 평화를 이룹니다. - 김명혁 목사님 08
- 정부가 아니면 우리라도 나서야 - 김상형 08
- 통일의 밥을 짓는 사람 - 윤영화 08
- 청년들과 함께하다 통일과 조우하다 - 노숙경 08

새로운 백년을 열어나가는 사람들

-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 08
- 깨어있는 시민 양성소 평화교육원 08
- 이미 통일된 세상에서 살고있습니다. 평화운동 08
- 청년 통일한국을 만나다, 청년포럼 08
- 아름다운 통일의 꽃으로 피어나다, 통일의병 08

평화재단 비전

08

부록

- 현안진단 목차 / 평화논평 목차 / 전문가포럼 목차 08
- 재단 구조도
- 표로 보는 재단 10년사(인포그래픽 및 도표)

## 다시 첫 마음으로,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995년에 중국에 있는 고구려·발해 유적지 역사기행을 갔을 때, 처음으로 북한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조선족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이듬해인 1996년 압록강변에서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한 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외면했던 것을 깊이 참회하고 북한동포돕기를 발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몇 년만 지원하면 적어도 굶주림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랑 메고 전국 방방곡곡,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는 실상을 알리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하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의, 거리 캠페인, 한 끼 굶기, 옥수수 보내기, 사랑의 옷 보내기, 100만인 서명운동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북한 동포돕기 국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북한식량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매달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죽은 시체, 배고파 울어대는 아이를 앞에 두고 줄 짓도 없어 힘없이 쓰러져가는 앙상하게 마른 엄마, 눈 덮인 백두산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넘어오던 난민청년들, 먹을 것을 찾아 연변 일대를 헤매는 어린 아이 등 식량난으로 야기된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모습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상을 국내외에 전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사(餓死)의 증거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탈북난민들을 만나 아사의 생생한 증언을 수집하였고 그것을 모아 (사)좋은벗들의 「북한 식량난의 실태」라는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보고서로 한국 정부와 미국, 중국, 일본 및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아사의 참상을 알리고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와 중국에서 겪는 탈북난민들

의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탈북난민의 실태와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탈북난민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난민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한국제이티에스(JTS)를 통해 나진선봉지역 어린이들에게 영양식 지원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대량 아사를 막을 만큼 인도적 지원도, 탈북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만큼 구호활동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적 지원마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싱턴 D.C의 의회관계자들, 국무성 관리들, 한반도 전문가들을 찾아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북한 동포들의 대량아사를 막고자 나섰을 때는 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들도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실을 국내 외에 알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해 보고자 「오늘의 북한소식」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의 노력보다는 무엇보다도 정부나 지도자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된 여론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포들을 돕자고 거리 모금을 하고 서명을 받을 때, 일부이긴 하지만 “그놈들은 죽어야 싸!”, “북쪽에 보낸 식량, 총알 되어 돌아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고는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분단이후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며 70여 년이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은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져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국가간 장벽도 허물고 지역공동체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단절된 상황에 갇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며 분단의 아픔을 보듬어 과거를 용서하고 치유하고자 <평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찾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라도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2003년 말

발의하여 2004년 11월 통일부 재단법인 설립을 인가, 2005년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화합을 위한 진보·보수, 여·야 각계 인사 만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 만남, 북한 입장 청취를 위한 중국 방문 등 여러 지도층 인사를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재단을 만들고자 했던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남북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러 전쟁위기로까지 치닫다가 어렵게 6자회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6자회담의 타결은 북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재단〉은 항구적 평화체제가 반드시 통일로 가는 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성사시키려면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평화재단〉의 주요 정책연구 핵심과제는 ‘평화체제수립과 통일방안’에 집중되었습니다. 또 ‘북한현실을 이해하는 모임’,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모임’,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법제를 연구하는 모임’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평화재단〉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체제경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청산과 민족의 화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사회는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여야 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에 대해 책임의식을 높여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통일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화합, 사회통합을 가장 우선해야 하므로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서로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재단〉은 평화연구원을 두어 통일·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해 각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 연구하고 전문가포럼을 통해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과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들의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평화재단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평화교육원에서는 사회 여론 층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통일운동을 하고자 평화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여성과 청년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분단세월은 분단의 내상과 함께 북한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진영논리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됨에도 이를 담아내고 조절, 조율하는 통합적 기능은 한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올 초 일어난 세월호의 비극적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자살률 3위의 국가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이며, 남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활로이며, 문제 해결의 출구이기도 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앞으로 〈평화재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평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고마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강원룡 목사님(〈평화재단〉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북한 동포들을 굶주림의 고통에서 구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할 때 앞장서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영훈 선생님이나 김명혁 목사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평화재단〉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재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자 나선 것이 첫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작지만 꾸준한 몸짓이 통일의 씨앗이 되고, 깊고도 넓게 통일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화재단〉은 필요하지만 누구도 선택 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틈새를 메우는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의 〈평화재단〉이 있기까지 무수한 배움의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해주신 많은 고마운 분들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민족의 희망이 되어,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북미 협상 대사로 있던 2003년부터 법률클스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스님께서 갖고 계신 북한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염려에 감명을 받았 습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 스님께서 해주신 조언은 스님의 따뜻함이나 진실됨 만큼이나 매우 귀중했습니다. 이처럼 홀류하신 영적 지도 자를 알고 그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I've known the Venerable Pomnyun since 2003, when I was a U.S. negotiator with North Korea. From our very first meeting, the Venerable impressed me with his care and concern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His advice on seeking a peaceful resolution to nuclear nego tiations with North Korea was invaluable, as was his warmth and sincerity. I was blessed to have had the honor of knowing and working with such a great spiritual leader.

Joe DeTrani



법률클 스님이 주재하는 평화재단의 10주년을 맞이하여, 법률클스님의 말씀과 활동을 연 구하면서 배운 자비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한반도를 특징지어 온 분단, 의심 그리고 분쟁은 남북의 국가뿐만 아니라 38선 을 두고 남과 북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의 접근법은 간단합니다. 북한 에서 탈출한 난민과 북한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합니다. 아 울러 그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삶에서 나오는 평화와 행복을 세계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재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봉사에의 소명”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구호활동을 하 는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법률클스님의 활동은 그 혜택이 직접적인 수혜자에만 머물지 않고 널리 퍼져가기 때문에 더욱 큰 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구하고

자 마음을 낸 사람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를 묶어주는 아주 특별한 유대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들에 대한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기회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eace Foundation, chaired by Ven. Pomnyun Sunim, I offer my deepest thanks for the lessons in compassion I have learned by studying Venerable Pomnyun's words and deeds. The Korean Peninsula has too long been marked by division, suspicion, and strife, not just between North and South, but even among the people living north and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e Peace Foundation strives to change that one life at a time. The Peace Foundation's approach is simple. It supports a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uffering endured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those living in hardship insid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ut it also creates pathways for people around the world to be reminded of the peace and happiness that comes from a life lived in service to others. To me, it is through a "call to service" that the Peace Foundation can have its greatest impact. There are other organiza tions that deliver aid or administer relief, but the work of Venerable Pomnyun has greater impact because the benefits extend beyond the immediate recipients of assistance. Those mobilized to care about human suffering are themselves helped through their engagement. They are reminded of the special bonds that link all of humanity, and they are offered a chance to live lives marked by compassion for others.

Warmest regards, Frank Jannuzi



# 평화재단이 걸어 온 길

아웃포커싱된 이미지 사진이나,  
재단 앞서기 나라가는거?

## 평화재단 창립

- 1998년부터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5차례 발의 모임
- 창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이사회
- 재단법인 설립 인가

## 북한 계층에 맞춘 대상별 통일법안 제안

- 진보, 보수, 여·야 등 각계 인사 대담  
2014년까지 1,330여명 만남
-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해외 관계기관 전문가 정책교류 시작
- 종교인 평화모임 <평화의 소리> 실무지원 활동 시작
- 정책발표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 민족화해와 통일시대를 향한 법제를 말한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책교류 및 네트워크



2004

2005





북한관련  
4개 분야  
정책 연구

-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135,141명 서명)
- 제2회 평화안보를 위한 한미전문가 정책 워크샵
- 한일전문가 정책워크샵
- 정책발표 [동북아평화를 위한 오바마 미국차기 정부의 한반도정책제안]

전문가 콜로키움 조직 4개분야의 정책연구



정책 교류통해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

- 평화안보를 위한 한미전문가 정책 워크샵
-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를 위한 6회 연속 워크샵
- 정책발표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 정책발표 [차기정부의 외교 · 안보 · 국방 · 통일정책의 과제]

한국,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제안



2006

2007





정부에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  
촉구

-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 1,135,141명 서명
- 제2회 평화안보를 위한 한미전문가 정책 워크숍
- 한일전문가 정책워크숍
- 정책발표 [동북아평화를 위한 오바마 미국차기 정부의 한반도정책 제안]

북한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캠페인



기존보다  
현실성 높은  
통일방안  
발표

- 평화안보를 위한 한일전문가 정책교류
-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시작, ~2014년 현재 11기 진행 중, 연 2회 진행
- 열린아카데미 시작, ~2014년 현재 20기 진행 중
- 정책발표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 : 화해상생통일론 제안]

통일코리아 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아카데미



2008

2009





정부에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  
촉구

- 현안진단 격주 발행, ~2014년 10월 31일 현재 107호 발행
- 정기·비정기의 시사현안 전문가 포럼  
~2014년 10월 현재 70차 진행 중
- 정책발표 :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 정책발표 :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포괄적 안보교환을 제안한다

북한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캠페인



청년,  
사회변화의  
희망이 되다

- 2011 청춘콘서트 안철수, 박경철, 김제동, 김여진  
총 39회 진행
- 청년리더십아카데미 ~2014년 현재 8기 진행 중, 연 2회 진행
- 열린아카데미 전국 동시 진행
- 정책발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 전략로드맵 :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상생프로세스]

통일 시민사회 활동의 대중적 확산



2010

2011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진행된 시민교육

- 희망세상만들기 전국 300강 진행
- 청춘콘서트 봉사자 중심의 「새로운 백년을 여는 청년포럼」 발족
  - 청춘콘서트 '2012 희망청춘, 김제동이 어깨동무 합니다'
- : 총 40회
- 정책발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방향]

전국 300강 통해 풀뿌리 민주시민 교육 확산



우리 사회에  
대북정책  
기본원칙 제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66인 선언문 발표 및 국회본회의 결의안 통과
-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기획강좌] 진행
- 새로운 백년을 향한 통일외명 발족
  - : 평화·여성리더십아카데미 졸업생 중심
- 정책발표 [한국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

대중적 통일운동의 주체 조직화



2012

2013



# 새로운 한국, 통일코리아 길을 열다

6.25 ~ 8.27 매주 수요일



## 기존 통일담론 성찰 및 연구 방향 제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1주년 심포지엄  
[국민통합 1년 :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토론회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 창립10주년 기획대담 총 9회 진행 [새로운 한국, 통일코리아 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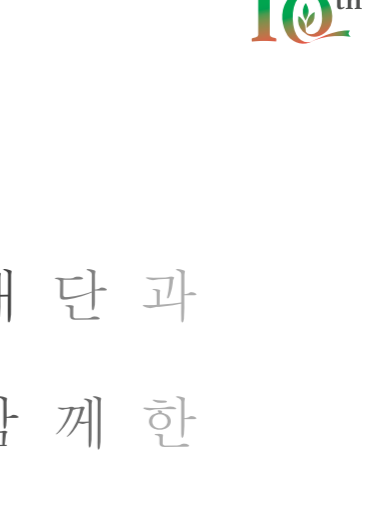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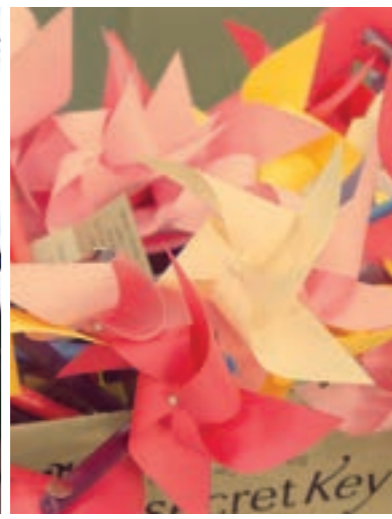
- 새로운 100년 청년학교 전국 24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
- 정책발표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
- 정책발표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 통일코리아 준비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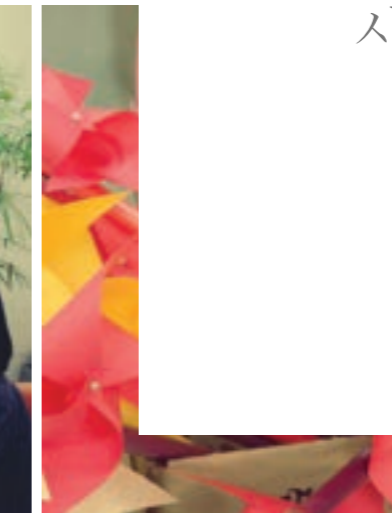
# 2014







재 단 과  
함 께 한  
사 람 들





## 사랑과 자비만이 화해와 평화를 이룹니다

평화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 설립이전부터 법륜스님과 함께 종교인 모임을 통해 20여년 세월을 북한동포 돕기를 함께 해 오신 김명혁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았다. 현재는 통일의병의 고문으로도 함께 해주신다.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의 인생역정도 그렇고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활동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자니 삶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볍게 받으며, 해야 할 일은 거침없이 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인터뷰어의 느낌을 말씀드리자 신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막 그냥 가서 당신을 '막가과'라 한다 말씀하시며 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신다.

종교인의 평화모임을 1996년부터 법륜스님과 함께 북한동포 돕기를 해오셨고 현재 종교인 모임의 좌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는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인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서로 죽이고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강조하는 것 구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해와 통일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불행한 가운데 20여년전에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님, 송월주 스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카톨릭 오태순 신부님, 법륜스님과 제가 심부름 하면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났던 파고다 공원에 모여 선언을 하고 천주교 명동성당까지 걸어가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자,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종교를 넘어서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귀한 역할을 했고 평화 운동의 맥락에서 평화재단이 10년전에 법륜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종교인 모임도 같이 만들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5개 종단의 중견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고맙지요. 그 가운데 법륜스님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륜스님은 스님이지만 스님의 모습을 넘어서서 개신교의 손봉호 박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봉호 박사도 철저한 신앙인이지만 신앙을 지니면서도 사회적인 존경을 받으며 사회변혁을 이뤄나갔는데



법륜스님이 넓은 마음가짐으로 불교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부터 법륜스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 모이면 언쟁을 하기도 했는데 (웃음) 그런 일이 없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한결같이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법륜스님은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종단을 떠나서 우리도 화해와 평화를 실현 하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화재단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발전하고 귀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북한 동포 돕기 할 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하면서 북한을 공식적으로 2번 방문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북한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한 건 아니었지요. 황해도 신천의 미군 학살 현장이라는 곳에서는 매우 전문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학살 사건이라면 당연히 국제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 및 검증해서 범죄성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곳은 사상 교육의 중심지인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니깐. 그래서 다시는 북한에 못 갈 줄 알았는데 몇 년 뒤 다시 종교지도자로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대놓고 북한에 대해 쓴소리를 했지만 나에게 대한 평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에게 득이 되는 비판을 하며 소신껏 행동하는 것은 상



대도 알아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997년 북한으로 강원도 평창감자 1690톤을 보냈던 일이 생각납니다. 뉴스에 강원도 고산지의 감자가 풍작으로 썩어간다는 소식에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동포들이 굶어죽어 가는데 남한은 풍년으로 감자가 썩어간다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에 의분이 일었습니다. 바로 무작정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평창군 공무원에게 감자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하자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정치상황을 비춰보면 그리 성사가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마음을 쏟듯, 엮드리는 마음으로 감자가 아주 썩기 전에 북한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호소도 하고 통일원 등 여기저기 연락하며 일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약 열흘이라는 최단 시일에 각 종단과 한국적십자사 등이 참여해 1,690톤의 감자를 북한으로 보내게 된 일입니다.

심군식 목사, 이윤구 박사, 오태순 신부, 법륜스님, 박청수 교무 등이 동행해서 평창군에 구입비 전달식을 마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을 때 참으로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 때 법륜스님이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동포의 대량아사 문제입니다. 이번에 남은 감자를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것은 강원도 농민도 살리고 북한동포도 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두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참다운 종교 활동이고 정의로운 사회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일이었지요.

2007년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및 강력한 대북폐쇄정책으로 인해 민간인 지원은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2010년 5개 종단 대표 9명이 밀가루 300톤을 가지고 북한 개성으로 가서 민화협 실무자들에게 전해주고 돌아온 일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중

국이든 '북한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펼 때 다 통한다. 겉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귀한 일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로도 어디든지 뛰어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간이든 북한이든 잡혀도 괜찮다. 순수한 사랑과 자비 그 길 만이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정치가 능사는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 통합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산주의든 무슬림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대방을 조금 인정하고 존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참 얼마나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면 도둑놈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도둑놈에게 긍휼을 베풀거든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군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는 겁니다. 야당, 여당 너무 자신만의 의견만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에 의하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상대의 힘든 상황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열린 자세로 임해야 일이 성사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답한 남북관계 개선도 이러한 자세로 접근하고, 이게 화해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인터뷰를 마치신 목사님은 내일은 아프리카로 떠나신다, 아프리카의 에볼라 창궐을 염려했더니, '그냥 가는 거지. 신앙인은 어디든 부르면 가신다'는 말씀에 울곧게 신앙인으로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의 은은한 향기가 느껴진다.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신 어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명혁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이 분 양력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목사님은 내일은 아프리카로 떠나신다.



## 통일은 수난과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길

현재 평화재단에서 평화 교육원 원장님을 맡고 계신 통일연구원의 조민 박사님께 평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단과 함께 10년의 활동을 해오시면서 원장님께서도 평화재단의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평화통일은 더 이상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현재와 같은 두 개의 분단국가 상태로는 미래를 열어 갈 수 없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런 입장에서 분단 현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가슴 아파하고 분단의 벽을 뚫어 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평화재단이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학자,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場)을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꼽을 수 있는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자, 전문가 중심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동량(棟梁)이

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리더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법륜 이사장님과 윤여준 전 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단위로 1년에 두 번 모집을 하는 평화리더십아카데미는 벌써 11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기까지 배출된 분들이 5백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청년리더십아카데미는 8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7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학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와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힘써 왔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분야에서 통일을 이루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평화재단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평화재단의 초기에는, 평화재단의 전문가, 지금은 교육원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활동과 단체일로 바쁘신 가운데 특히 평화재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동력을 무엇인가요?

한반도가 둘로 찢겨져 산하(山河)가 동강난 지 내년이면 어언 7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섬 아닌 섬'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기차로 서너 시간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산 가는 길인 통일로를 달리다가 한강 쪽의 철조망을 바라보면 그만 숨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이 한 뼘 땅에 강으로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철조망까지 치고 살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요. 요사이 뉴스를 보세요. 북한 관련 뉴스가 거의 모든 신문이나 TV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에도 남북간 갈등은 물론이고 더욱이 남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언론 매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서 분단 문제를 차분히 짚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화재단 아니고서 말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를 이끌고 민족의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정치인의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양식 있는 언

론의 역할과 지식인의 사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든, 어느 정당에 몸 담고 있든, 어떤 입장의 지식인이든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마당이 평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재단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평화재단은 좌도, 우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두와 함께' 가고자 할 뿐입니다. 평화재단은 남녘, 북녘 그리고 해외동포를 아우르는 8천만 동포 모두의 편이고자 합니다. 불초한 제가 교육원 원장이라는 중임을 맡은 데에는 이런 뜻을 품고 아낌없이 청춘을 다 바쳐 평화재단을 꾸려온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좀 덜고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재단이 활동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연구, 인재양성, 통일운동을 펼쳐간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평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쓴 소리가 있다면요?



통일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과 더불어 통일 의지의 고취 또는 대중적 확산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정부 역할 못지않게 시민사회 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이 뒤바뀌어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민족 문제가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파성을 초월하여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 위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민족의 백년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학은 이미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화되어 바람직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든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면 재벌이 주인되는 사회, 재벌이 주무르는 통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평화재단에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내실있고 본격적인 연구소가 하나 꾸러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도 필요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힘으로, 대중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민족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연구소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은 역시 통일운동입니다. 사실 통일운동을 펼칠만한 단체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열정이 없는 시대에 대중적 결집인 통일운동이란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일운동을 펼



칠 수 있는 인적 자산이 뭔가 한 번 일내보자고 기대하고 모이는 데가 여기 평화재단 이외에 어디에 또 있습니까? 우리 평화재단만이 한바탕 굶판을 벌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가 배출한 통일역군이 통일의병입니다. 통일의병이 조만간 큰 일 한번 치리라고 기대합니다.

‘통일대박’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는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고,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할 때,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재단이 좀 더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통일담론을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 통일 하면 평화재단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여길 정도로

통일담론을 생산하고 끌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본격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통일 얘기를 주저하고 뒤로 밀칠 때가 아닙니다. 분단평화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북한 동포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통일은 더 크고 더욱 부강하고 아름다운 조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통일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여는 새 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아무리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도 통일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 있겠습니까?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 추한 몰골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태는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물신 숭배, 탐욕 체계, 고삐 풀린 시장경제체제를 순치(馴致)시켜야 합니다. 내적 성찰을 통해 미래로 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과거 우리가 바랬던 미래가 오늘의 이 모습이었던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일담론을 이끌기 위해 평화재단은 우리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성찰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욱 근원적인 성찰, 혁신적인 대안 제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로 가는 큰 길에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국민적 통일의지의 결집에 정부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역할도 함께 중요합니다. 평화재단이 먼저 통일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통일 국가의 형태, 통일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 이런 철학적·사상적 담론을 끌어가야 하겠습니다. 통일현장, 통일방안 마련에는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요구됩니다. 평화재단은 소통의 가교가 되길 바랍니다.

원장님은 전문가이면서도 운동가처럼 통일에 대한 열정과 호흡, 감동을 중요시하는데, 통일에 대한 열정이나 지속적인 관심은 어떤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연구실에서, 책상머리에서 무슨 통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굴곡의 150년, 70년 분단시대의 뒤틀린 역사를 모르고 민족 문제를 말하기는 힘들지요. 또 우리가 어디에 섰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지요. 책상머리 고민도 의미가 있고, 벗들과 함께 어울려 미래를 모색하고 통일의지를 서로 북돋우는 일도 필요합니다.

통일은 7천 5백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풍요롭고 힘찬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요. 통일은 북만주 별판을 울리던 5천년 고대사의 영광을 되찾는 쾌거이며, 수난과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8백만 해외동포의 설움, 눈물, 고투의 삶이 일순간에 녹아 내리는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인류사의 새로운 장(章)을 여는 하늘이 내린 미션입니다. 이 장쾌한 소명(召命) 앞에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두 함께 통일로, 한 길로 나아갑시다.

조민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이 문 양력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목사님은 내일은 아프리카로 떠나신다.





## 통일의 밥을 짓다

윤영화

평화재단은 다양한 연령,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전문 지식으로 칼럼과 전문가 자료를 만드는 전문 연구원, 평화재단의 후원회원을 관리하는 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나 각종 장비를 수리하는 일까지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다양한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느 업무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묵묵히 각종 모임과 손님 접대를 위해 재단의 조리실에서 밥을 지어온 윤영화님을 소개한다. 평화재단에서는 전문가 모임의 식사 준비나 아카데미 강사의 식사 또는 스님을 만나러 오시는 손님의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자주 있다. 5년째 평화재단에서 밥을 짓는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걸까?

“이 땅에서 태어나 살며 이 땅에서 나고 자라는 곡식과 야채를 먹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니, 받은 은혜를 되 갚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언젠가 법륜스님께서 강의 중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이로운 일은 통일이라는 말씀에, 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힘을 보태는 것이 받은 은혜를 갚는 거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화님과 평화재단의 인연이 궁금했다. 딸린 식구도 없이 혼자 살기에 음식을 거의 만들지 않고 살고 음식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던 그녀가 평화재단에서 5년간 밥을 짓게 된 건 법륜스님의 통일 강의 때문이었다. 스님의 통일 강의는 벼락처럼 가슴에 내리쳤다고 한다. “통일에 꽃혔죠.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하는 건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스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재단에서 음식 만드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칼질도 제대로 못해 진땀을 뺐다. 어느 날은 반찬이 너무 짜거나 싱거웠다. 음식 만드는 것에 자신이 없어 밥상을 내놓고도 마음이 힘들었던다. 하지만 맛있다는 조리법이 있으면 귀동냥으로 묻고, 요리책도 보면서 좀 더 나아지고자 노력하는 세월이 쌓이다보니 지금은 혼자서 10인분의 밥상도 수월하게 차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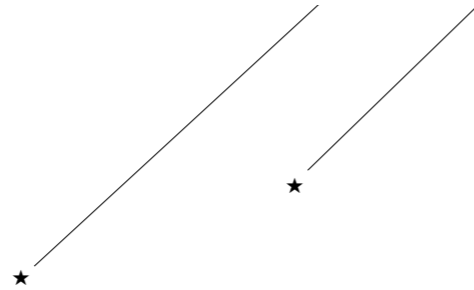
인터뷰 내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통일”이란 단어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며 진지한 표정을 짓는 윤영화님.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인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고 어떤 때는 화도 났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은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 나와 다름을 점차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재단에서 밥 짓는 봉사도 하지만 고액기부자이기도 한 그녀. 그 일에 대해서 묻자 손사래를 치며 다시 통일을 이야기한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용성스님을 포함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그리고 김좌진,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들. 법륜스님을 따라간 동북아 역사기행에서 알게 된 대중교 3인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가슴에서 끓어올라요. 이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도 버렸는데 나도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재단에 와서 전문가들에게 드릴 밥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그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아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목숨을 내놓은 분들도 있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니 북한의 힘든 사람들에게 불교 포교를 하고 싶다고 한다. 평소 재단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날에는 등산을 즐겨한다는 그녀는 통일 되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에도 가고 싶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하게 이야기 하지만,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숨기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직접 차려내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평화재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리라. 통일 후 묘향산 정상에서 지금처럼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윤영화님을 상상해본다.



## 정부가 아니면 우리라도 나서야

김상형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풀뿌리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심한 변비가 되고 변을 보려면 항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름 햇감자가 날 때까지 남쪽의 남아도는 쌀을 조금만 북한으로 보내주면 수십만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어느 봄날 수출입은행에서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법륜 스님으로부터 들은 애간장이 타듯 절절함이 담긴 말씀이었다. 그 날 이후 한동안 배부르게 밥을 먹는 것도 음식을 남기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도록 배고픈 북한 동포들에게 쌀 한 톨 건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해 여름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배고파 죽었을까? 이념은 민족이나 인도주의보다 강한 것인가? 모든 것을 정치지도자의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가? 그 당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2012년 어느 날 평화리더십아카데미 7기 개설을 알리는 안내문을 받았다. ‘우리 시대의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아래 법륜스님을 비롯하

여 쟁쟁한 강사진이 소개되어 있었다. 남북관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무력함을 절감했던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 강의를 듣는 내내 ‘통일’, ‘경제민주화’, ‘시대정신’, ‘양극화해소’, ‘공동체의식’, ‘사회정의’ 등 평소 내가 애써 외면하거나 건성으로 지나쳤던 단어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생살을 찢듯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였다. 특히, 통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잠자던 의식을 깨우는 준비의 깨우침과도 같았다. 그동안 정년을 준비한답시고 법정관리인, 경매, 부동산 등 재테크 강좌와 취미생활을 찾아 다녔던 일들이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수료하고 구체적인 모색의 시간을 갖는 중에 아카데미 동문들을 중심으로 통일의 병을 만든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통일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고 백의중군, 헌신성, 자발성, 공공성이라는 의병정신에 마음이 끌렸다. 의병번호 135번. 2013년 초여름 기쁜 마음으로 통일의병 원년의 일원이 되었다. 어느덧 통일의병이 출범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을 했다. 강령과 정관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의병의 초창기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이 나이 먹도록 돈 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여 한 적이 없다. 할 일이 있으니 게을러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젊고 영혼이 맑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 생각이 젊어진 다.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생기고 모난 생각이 다듬어지며 다름을 인정하는 유연함도 생겨난다. 이런 이유로 나에게 있어 통일의 병은 축복이나 다름이 없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동포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그 때 만큼

정, 출범식 행사, 통일시민학교 개설, 창립1주년 기념식, 수차례에 걸친 포럼, 학수고대 탄생, 지역소모임 시작, 강사학교 운영, 자탄통 행사와 연두의병 원정대, 한일군사협정 반대 심포지엄, 누비길 행사 등등. 행사 하나 하나가 힘든 준비과정과 열띤 토론의 산물이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 더 잘할 수 있었던 일, 마음만 앞서 저지른 자질구레한 실수들, 일을 하다가 더러 의병 간에 마음이 상한 일 등. 하지만 그 또한 배움과 발전의 과정이었다. 그만큼 의병의 역량이 자랐고 의병간의 동지애가 굳고 단단해졌다.

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많은 동포들이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더구나 피를 나눈 동포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구경만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안하면 우리 의병이라도 나서야 한다. 통일의 여정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이다. 의병정신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백년을 여는 통일의병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임을 믿는다. 통일의병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10만 의병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한다.





## 청춘들과 함께하다, 통일과 조우하다

노숙경



첫. 시작.

대학에 갓 입학한 스무살 적, 나는 풍물패였다. 청춘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대학의 꽃이라던 동아리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풍물패에 들어가 학교수업보다 열심히 활동했다. 악기를 치며 몸으로 알게 된 '함께 하는 기쁨', 주위들은 역사교양, 얼떨결에 가게 된 시위들... 이런 것들이 입시공부만 하며 사춘기 없이 지내온 나의 스무 살 무렵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렇지만 항상 불편함이 있었다. 싸우고 반대하는 것이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고, 평화를 말하고 있었지만 내 삶은 평화롭지 못했다. 그러다가 법륜스님을 만났다. 스님이 이끌고 계시는 환경, 인권, 평화, 국제구호 활동 모두 좋았고 무엇보다도 나를 매료시킨 건 나의 불편함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거였다.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구나. 내 삶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해나가면 되는 거구나. 나는 이것을 허공의 말이 아니라 이미 삶속에서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그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통일과. 교감하다.

지금의 나는 평화재단의 청년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통일! 참 생똥맞다. 나에게도 처음에는 그랬다. 법륜스님의 많은 활동 중에 통일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었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청년들과 통일운동을 하게 된 건 2010년 청춘콘서트에 참여한 이후였다. 나를 포함해 가까이서 느끼는 청년들의 삶은 정말 팍팍하다.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어렵고, 주거, 결혼, 육아... 모두가 너무나 까마득한 일로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정직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면 정치가 변해야 하는데 현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마땅한 색깔론, 이념이 우리 정치에서는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며 통일이라는 것과 생애 첫 교감을 이뤄냈다. 통일이 되어야 저런 꼴을 안 보겠구나. 그래야 정치가 좀 변하겠구나. 나의 삶과 통일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이 통일과 다양한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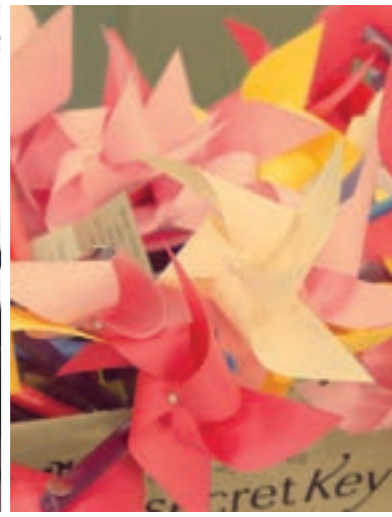


내. 삶속. 평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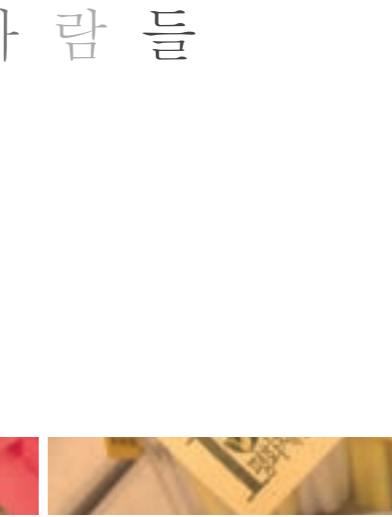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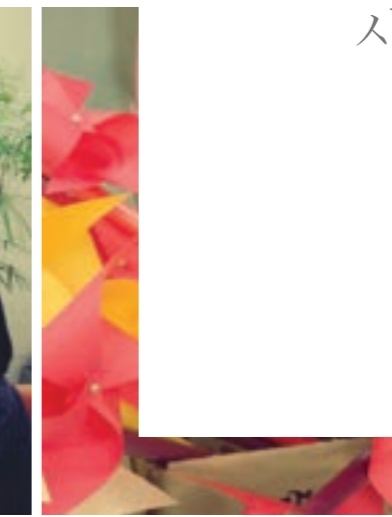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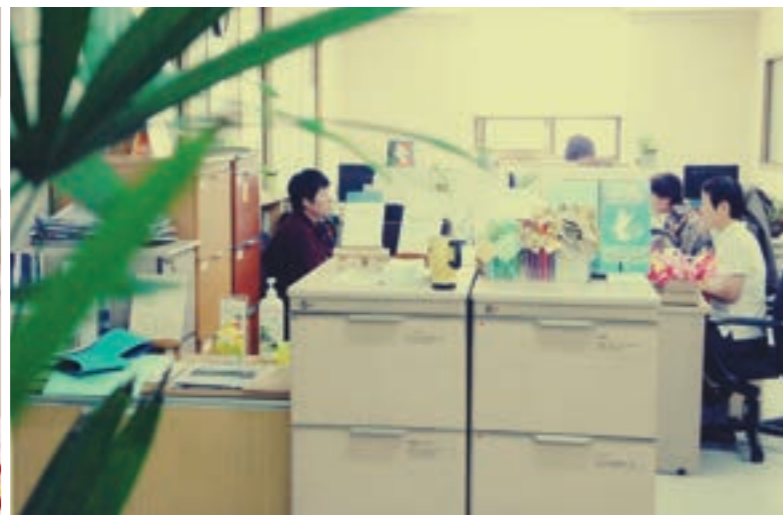
내 삶에서 평화재단의 비중은 90% 이상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쏟아 붓는 에너지, 나를 둘러싼 관계망으로도 그렇다. 단순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평화롭지 못할 때가 많다. 머리로는 계산을 하고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한다. 그래도 여전히 몸이 여기에 있는 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뜻을 이뤄가는 재미와 보람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탓이다. 내 것을 하나 내려놓았을 때 마음은 오히려 차오르는 그 느낌! 흔들리고 자빠지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나의 지난 시간, 그리고 평화재단이 걸어온 지난 10년, 잘했다고 토닥여주고 싶다.







재단과  
함께한  
사람들





## ‘화해와 평화’의 큰 걸음, ‘새로운 100년’을 디자인하다

평화재단을 설립할 때 만난 좌우와 진보, 보수, 여야를 막론한 각계 인사들은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평화재단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화해와 평화, 상생’을 위한 연구정책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먼저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모임(평화체제 모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북한현실 모임),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모임(북한인권모임), 통일을 위한 평화법제 연구모임(평화법제모임) 등을 결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안을 생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매월 1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 정세현안과 연구 과제를 토의하고 정책제안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문가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이 모든 연구정책활동의 근간이 되는 각 전문가모임들은 2014년 10월 현재



각 모임별로 평균 80회에 이르는 대장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모임별로 보다 세부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면,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 연구모임에서는 현 단계 평화체제와 통일방안을 점검하고, 동북아 질서재편 구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한반도 평화협정의 방안은 어떠해야 할지를 중점 연구해왔습니다.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에서는 남한 정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던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북한 지도부의 동향과 대내외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교차분석하며 우리의 대북정책과 외교 부문의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모임에서는 남남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정리하고,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 이후 이념에서 벗어나 인권문제를 인권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보편적 인권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평화법제 연구모임에서는 2005년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민족화해와 통일시대를 향한 법제를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과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법제연구팀의 특성상 다른 연구모임과 의제에 따라 수시로 결합하며 논의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남북한 민족화해법을 제안하고, 대북인도적지원법과 북한인권법 등 북한의 대상별, 계층별 법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우리나라 법제연구의 지평을 넓혀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지속가능한 북한개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남북통합을 위한 북한개발 협력 연구 모임(북한개발모임)을 결성하고 3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한 개발 협력”(2012)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3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학제간 통일연구를 위해 신진전문가 모임이 결성됐고, 특히 통일코리아를 대비한 남한 사회의 통일 준비를 연구하는 통일플랫폼모임이 만들어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전문가모임에서 논의해온 연구물들은 전문가포럼과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외화하고, 사회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전문가포럼은 전문가모임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각 시기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매월 1회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까지 총 70회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심포지엄을 개최해 여러 사업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2014년 11월 현재 18회에 걸쳐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총 56회에 걸쳐 발행된 평화논평(2006-2008년)과 총 109회 발행된 현안진단(2010년-현재) 칼럼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안진단은 격주로 발행되는 온라인 칼럼으로, 집필진 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배경과 전망을 간략히 분석하고 논의한 뒤에 작성됩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한 현안을 다루면서, 동시에 외교와 안보, 국내 정세를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며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은 현재 매년 책자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시기별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북한현실모임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지, 핵실험의 의미와 배경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전망했고, 평화체제모임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각계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더욱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던 때였기에, 북한의 일반 주민과 지도 권력을 구분해서 보고, ‘핵을 가진 북한’을 고려한 냉철한 현실인식 위에 주변강대국 이해전략을 면밀히 고려하며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과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각계의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2007년에는 북핵문제의 경우 2.13합의 이후 새로운 분위기로 6자회담이 진행됐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수가 있었습니다. 2.13합의 이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개편에서 한국이 소외될 경우 분단고착과 국제적 고립에 빠질 위험을 우려하며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제7차 전문가포럼)와 “2.13합의 이후 북한 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과 구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화법제 연구모임 연구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제8차, 제11차 전문가포럼)와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제9차), “남북통일협정(안)을 제안한다(2)”(비공개 집중토론회)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제12차) 등 일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열띤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평화통일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평화협정과 통일협정안을 준비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해 전문가포럼을 통해 의견을 받아 수정하면서, 평화협정과 남북통일협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방과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현실가능한 안을 만



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둔 창립 3주년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의 과제-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한다-”는 주제로 외교·안보·국방·통일 부문에서 차기 정부 5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재단에 더 많은 과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이전 10년 정부의 정책과 단절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고, 군사적 긴장이 조성됐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정점으로 인도주의 지원과 교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2008년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식량 위기 진단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제20차 전문가포럼)을 통해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고통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시리즈’라는 큰 주제에 따라 ‘대북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제25차),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제26차),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일 통일 전후의 경험’(제28차) 등 연속 세 차례의 전문가포럼을 열어 개발지원협력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민간연구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미협력구상’을 발표해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해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세계는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다자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반해 남북한만은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평화재단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창립1주년부터 5년 동안 축적한 연구결과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화해상생통일론’(2009년)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실공히 평화재단 공동연구진의 집단 성과물인 ‘화해상생통일방안’은 ‘통일을 바라보는 국가 중심적 시각과 국제관계 중심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민족구성원의 시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주민들도 통일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자라고 인정’한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분단의 갈등과 상처를 우선 치유하는 ‘화해’를 필요조

건으로, 서로를 살리는 ‘상생’을 충분조건의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또 점진적인 3단계(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통일경로에서 남북연합의 조건으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꼽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인권 개선을 위해 긴급 구호 차원의 대북지원을 넘어서 “북한 주민의 빈곤 감소 및 인간개발지수의 제고를 위한 ‘포괄적 북한개발지원전략’이 통일지향의 입장에서 수립·시행되어야”하며, 최종적으로는 남북 경제강화협력협정(CEPA)을 체결하고, 동북아를 아우르는 한반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화해상생통일방안’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라는 과제를 개념과 관념의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구체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연구결과물이었습니다.

‘화해상생통일방안’ 발표 이후 후속 연구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한 군사위기와 남남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년여에 걸쳐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 전략 로드맵: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상생프로세스’(2011년)와 ‘국가비전과 통합적 통일정책: 통일정책의 과제와 대안’(2012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방향’(2012년)을 연달아 논의하고 사회에 의제를 던졌습니다.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급변



사태와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 답보상태의 북핵문제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평화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내의 사회통합과 민족의 새 발전 동력인 통일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 보고, 관련 연구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은 새해 벽두부터 북한 3차 핵실험이 강행돼 정전 60주년이라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반도 핵 위험 시대와 평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것인지, 주변국과 공조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답답한 남북현실을 타개하고, 한국의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한국 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는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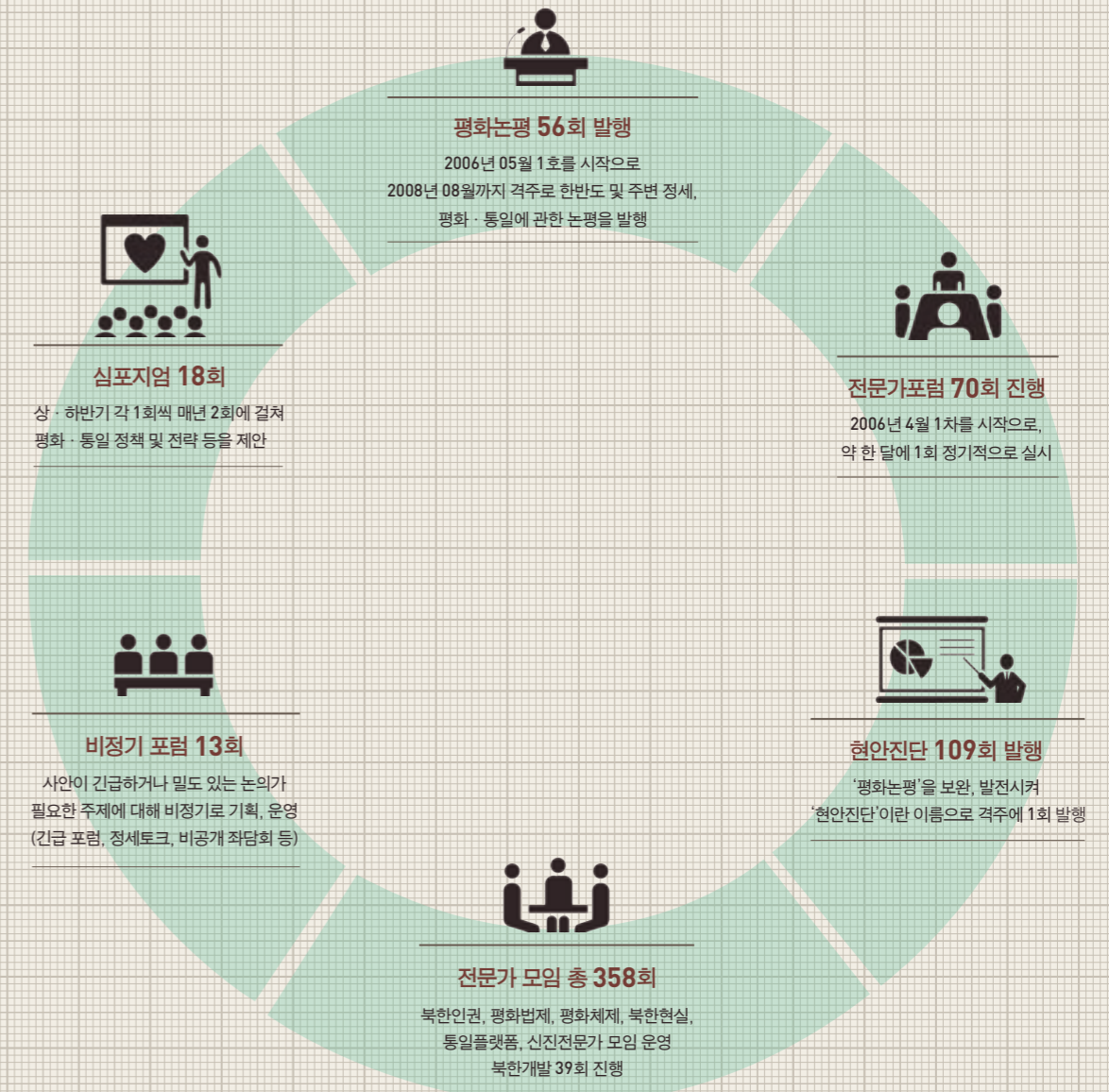
2014년 올해는 민주주의의 퇴보와 세월호 사고로 집약된 남한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런' 남한과 '저' 북한이 통일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 것인가. 통일을 북한의 식민지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모범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성찰 속에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보다 매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100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한다'(2014년 창립10주년 기념심포지엄)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일반 연구기관과 다른 점은, 상주 연구위원은 없지만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연구위원들께서 연구를 통해 통일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합리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통일방법론을 제시하고, 탈이념적이고 균형 잡힌 통일정책을 생산하며,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호적인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강한 통일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통일운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연구원은 통일코리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연구들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연구원

재단 창립 이래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정책연구 활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 통일코리아를 만들어갈 리더 양성 평화교육원

### 평화교육원이 만들어지게 되기까지

한국 사회는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좌표를 상실한 채 민족사의 항방과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으로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 심각한 내적 균열상태에, 밖으로는 세계정세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보화가 깊숙이 진행되면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어 사회해체와 함께 '위험사회'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미래지향적 국가발전 방향 모색과, 연대와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속의 한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를 통찰하고 세계를 투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한국을 이끌고 있는 정치리더십은 끝없는 갈등속에서 비전을 갖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0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은 그 열기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한국사회 변화와 통일을 만들어갈 중간리더층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은 리더십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의 국가발전 방향에 공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민족의 통일과 인류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소명의식을 지닌 역량있는 비전그룹을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평화리더십아카데미(2009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새로운 대안 리더십으로 부각됨에 따라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과정인 여성리더십아카데미(2011년), 경쟁사회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민의식을 불어넣어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청년리더십아카데미(2011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주요 아젠다를 기획하고 사회발전방향을 제시한 기획강좌(2009)와 열린아카데미(2009)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 평화교육원의 지향

#### 자기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사회변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은 사회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각 아카데미의 과정에서 진정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이에 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가집니다. 나아가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며 그 가치관으로 중용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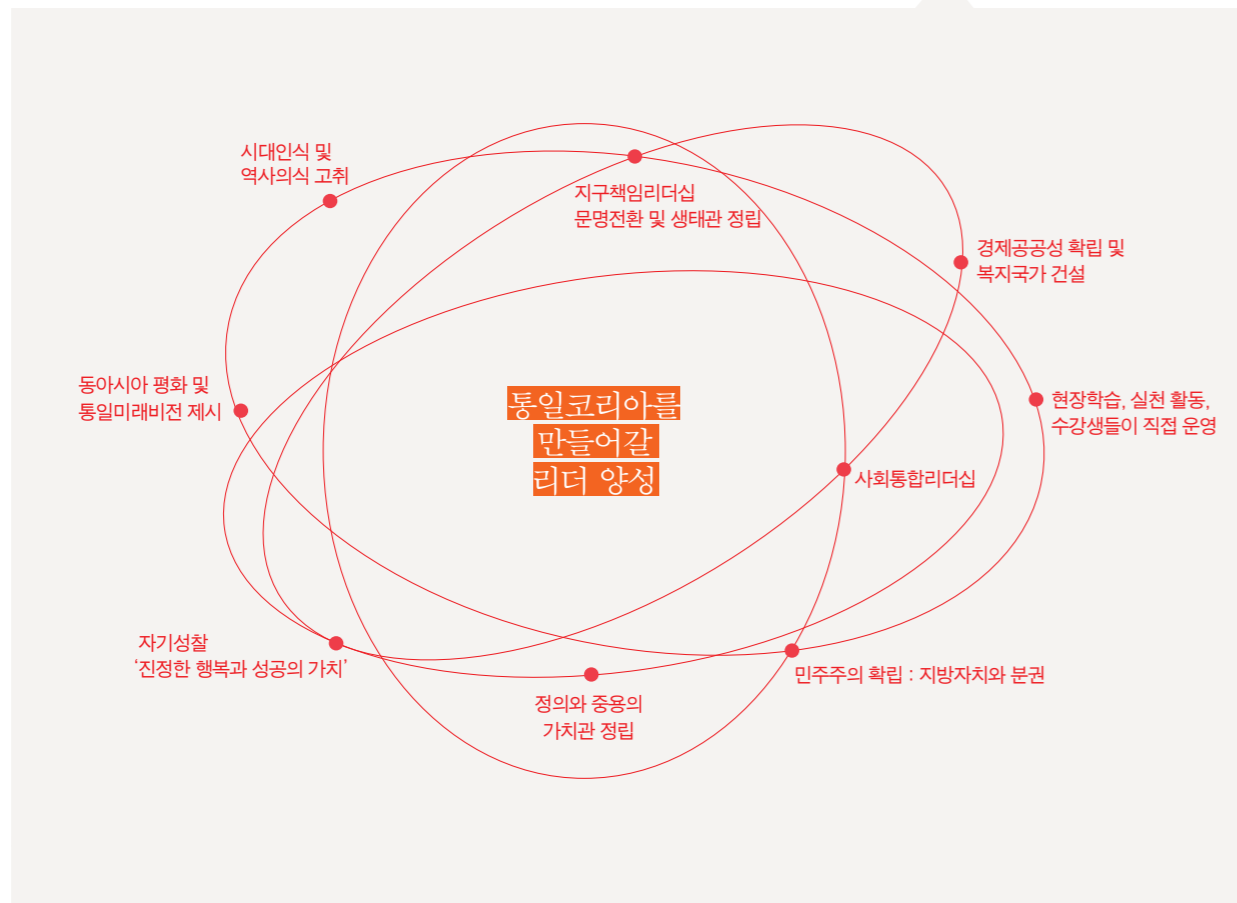
### 시대과제에 대한 깊은 통찰

한국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주요한 시대적 과제는 통일코리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사회가 통일코리아로 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역사적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통일코리아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조명을 통해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문제를 풀 해법을 찾습니다.

통일코리아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공공성 확립 및 복지국가 건설,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확립,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리더십, 한중일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 북한 이해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생태관 정립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아카데미의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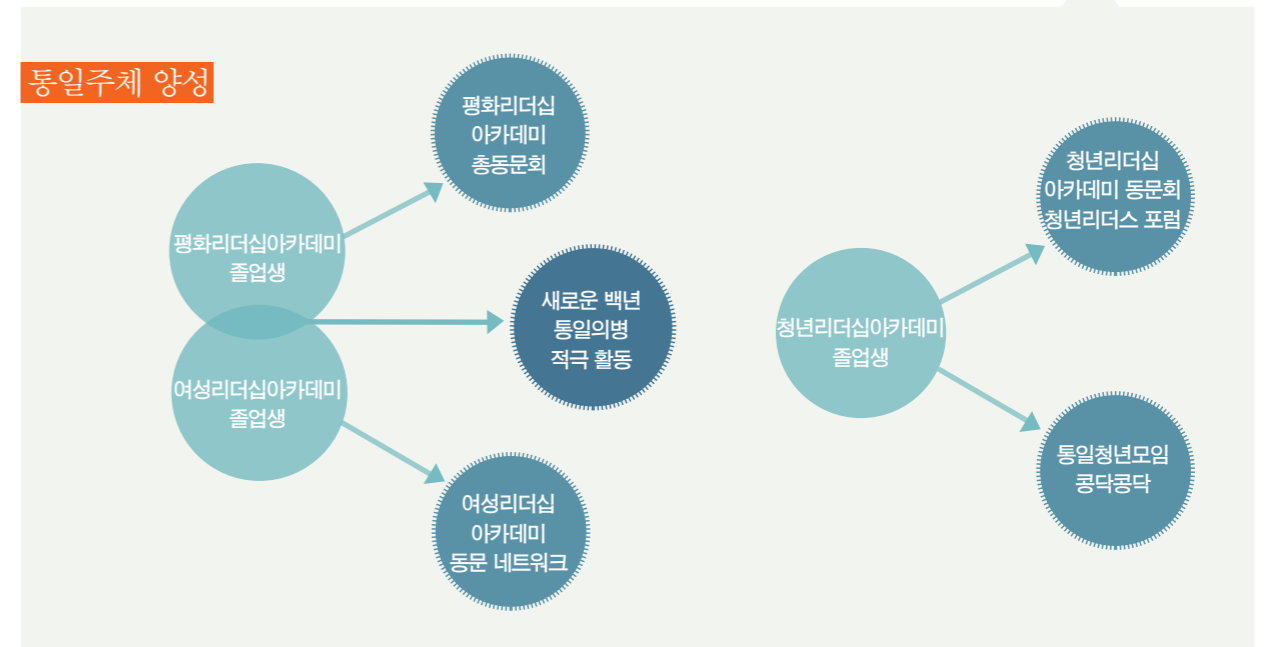
### 사회통합의 실현의 장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평화교육원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통해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 참여 · 실천 · 행동의 장

각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부터 홍보, 진행 등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커리큘럼에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함께 토론하고,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청춘콘서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졸업생들과 함께 2013년 「새로운 백년을 향한 통일의병」을 발족하여 통일을 향한 실천 활동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리더십아카데미 또한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 는 가슴뛰는 통일청년모임 「콩닥콩닥」을 만들어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아카데미마다 동문회 및 동문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배움의 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100년을 향한 변화의 상상력을 펼쳐라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민족의 통일과 인류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며, 국가발전 전략 마련, 사회통합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비전 그룹 양성.

■ 대상 : 35세이상의 오피니언 리더(전문직종인) ■ 기간 : 매해 2회, 각 12주 과정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통통통통한 여성들의 길 찾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청년의 방향과 학생의 자살, 막히고 갈라지고 해체되는 우리 사회에 배려와 돌봄의 여성성이 새로운 가치로 평가. 사회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소통과 화해, 통합의 여성리더십 양성.

■ 대상 : 모든 여성 ■ 기간 : 매해 2회, 각 8주 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 청년리더십아카데미

2030세대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청년리더십을 창조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비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여는 청년리더 네트워크 구성.

■ 대상 : 35세이하의 청년 ■ 기간 : 매해 2회, 각 10주 과정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시민소통광장, 열린아카데미 · 기획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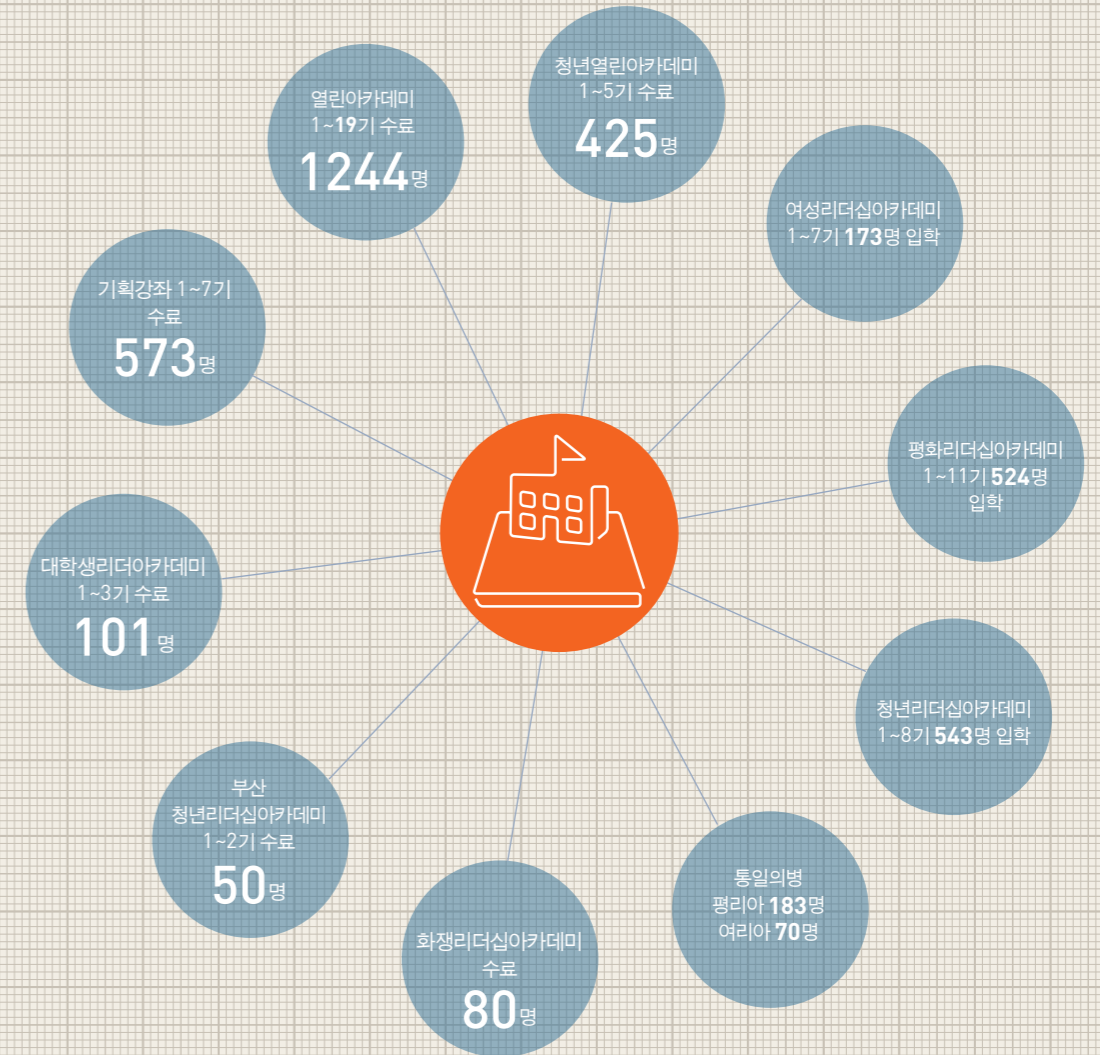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시민교육강좌. 다양한 의제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 낮추기.

「윤여준의 한국정치이야기」 「김영수의 북한이야기」 「시민, 시대를 묻다」 「환경아카데미」 「교사아카데미」 「엄마수업」

「시니어아카데미」 「지방자치제사용설명서」 「의료민영화 vs 의료선진화정책」 「대한민국, 근대의 리더십」

「새로운백년아카데미」 등

## 숫자로 보는 아카데미



#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

흔탁한 일상에  
한 줄기 빛이었다.  
희망이 비로소 희망다워진  
내일은  
모두 웃음이라

내 자신과 가족,  
회사만 생각했던 나를.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미래도  
생각 할 수 있도록 바른 시각과  
넓은 사고를 갖게 해준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배우고  
대안을 찾아보는  
이번 아카데미 수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  
뿌듯하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  
과정을 들으면서  
사회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고마운 스승같은 과정이었다.

내게 평화리더십아카데미는  
오늘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상처로  
힘들어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축복을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나로부터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성찰과  
시대적 사명의 깊고 넓은 인식을  
갖게 한 교육이었다.  
앞으로 한 세대 30년을 이끌어갈  
모태가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깨우침을 얻은  
귀한 시간이었다.









## 이미 통일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재단 사업은 평화연구원의 정책 연구 활동, 평화교육원의 교육 활동, 평화운동의 3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의 활동은 출발할 당시부터 갖고 있던 사업 방향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루어진 분화의 결과입니다.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동은 크게 사회여론층과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 청년포럼과 통일의병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면서 대중적인 통일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단이 지향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며 조화로운 세상, 통일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느 한 계층의 몫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단이 출발할 당시에는 정책 연구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통일을 이루는 길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책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가난과 억압의 고통을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전문가포럼이나 심포지엄의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 늘 적절한 시의성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통일 운동은 평화와 화해를 위해 교섭·조정 및 네트워크 활동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 장년들의 모임으로 확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때부터 시작된 교섭·조정 및 네트워크 활동은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 갈등의 해결과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층을 넓히고자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 여야 인사 등을 만나 재단 설립취지를 설명하였습니

다. 사회의 중견원로들, 전문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평화재단은 좌우, 진보, 보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평화를 다지는 운동의 연결망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공감과 필요한 역할을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 개발지원, 평화녹색국가, 평화운동 등 논쟁적인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네트워크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논의를 모아가는 자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과 폐쇄성이 노골화되는 2008년부터는 네트워크 워크숍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분들은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문가들과 국무부 등의 정책관계자들과의 만남은 현재 까지 1년에 평균 3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미국에서 인연이 맺어진 것은 '사)좋은벗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북한 소식 공유로 인해, 북미 양자 간의 입장차는 서서히 좁혀지고 양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2.13 합의로 북핵문제의 실마리가 잡히게 된 것에도 그 동안의 물밑 작업이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해에는 평화연구원에서 평화협정, 통일협정 등의 시의성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당국 자체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교류협력에 의지가 적었고, 그러다보니 북한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정책관계자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의 정체를 뚫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합의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북한돕기 운동시절부터 함께 했던 5대 종단의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처음부터 실무지원을 해 왔으며, 2013년에는 여야·진보·보수를 포함한 사회 각계인사와의 네트워크를 엮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을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에 북한돕기를 호소하고 직접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며, 이명박 정부하에서 막혀있던 대북정책 변화를 위해 몇 차례의 종교인서명을 주도하였습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적 대북정책을 위한 6가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을 만든 모임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이 만들어지기까지 모임 구성원을 선정, 섭외한 뒤 수차례의 모임을 진행하고, 전체 선언문의 방향과 문구 및 합의의 정도를 조율해가는 자체가 진정한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직접 새로운 동참자를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100여명의 대상자 중 66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언문은 2013년 6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되고,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6명 중 207명 찬성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이란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활동**

▶	▶	▶	▶	▶	▶
<b>2008.6.2</b>	<b>2008.7.5</b>	<b>2008.10.7</b>	<b>2010</b>	<b>2011.4.12</b>	<b>2013.8.7</b>
북한주민 아사를 막기 위한 식량 20만톤 긴급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	종교인모임, 정토회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자수:1,135,141명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식량 20만톤의 인도적 지원과 북한경제개발 기금으로 정부예산 1%사용을 촉구하는 100만인 국민서명 전달식 및 결과보고회	북녘 동포를 위한 밀가루 300톤 지원 및 종교인 9인 개성방문	생명과 평화를 위한 대북인도적 지원재개 호소 기자회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 :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희망세상 만들기  
대중 강연**

2011년부터 시작한 희망세상만들기 대중강연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 자신이 처한 삶의 고뇌를 법륜스님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상처 치유는 물론 사회의 모순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습니다. 현대 인류사회가 직면한 지나친 욕망과 물질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경쟁과 성장주의로 인한 사회 공동체 붕괴, 대량소비와 자원고갈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언 70여년에 접어드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체제까지. 현대 한국인이 겪는 그 많은 정신적 방황과 갈등의 대부분도 이런 국가가 처한 현실에서 파생되었음을 각성하게 하는 대중강연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심리치유의 장이며, 주위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점검하는 리더십 교육의 공간입니다. 2014년부터는 아시아와 유럽, 미주대륙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뿐 아니라, 현지 외국인들과도 인류 문명의 한계와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대화의 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의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

(요약)

- 01 교류와 협력을 남북관계의 기본축으로 삼음
- 02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조치 취함
- 0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일체의 핵 활동 중지를 선언해야 함
- 04 북한주민의 인권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함
- 05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이산가족 상봉 방안도 지체없이 추진함
- 06 민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도적 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

2011년,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이 사회면을 장식하고, 높은 대학 등록금, 청년실업 등으로 2030세대 청년들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희망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춘콘서트는 이러한 청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은 2011년 ‘희망공감 청춘 콘서트’의 자원 활동가로 참여했던 20~30대 청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6월에 결성된 전국적인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희망공감 청춘콘서트 우리 함께 꿈꾸자’라는 이름으로 전국 27개 도시에서 열린 청춘콘서트는 국민참여 10만명, 청년서포터즈 3천명, 멘토 100인의 자발적인 후원모금과 재능기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공익적 강연콘서트의 모델이 되었고, 한국사회에 ‘공감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파시켰습니다.

이후 청년세대의 비전제시와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청년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청춘콘서트 2.0’, ‘새로운 백년 북 콘서트’, ‘김제동의 어깨동무 콘서트’로 이어졌으며, 미래지향적인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청춘캠프’, ‘청춘학교’, ‘열린세미나’, ‘청년캠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포럼(2012. 6)’이라는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포럼의 지향과 비전

- 새로운 백년의 비전인 '통일코리아,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운동을 일구어갑니다.
- 행복한 삶,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마음공부 · 자원활동 · 에코라이프'의 청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새로운 통일시대,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통합의 리더십'을 함양한 청년인재를 양성합니다.





## 새로운 백년 청년학교

'깨어있는, 함께 있는, 실천하는 청년공동체'를 지향하며 마음공부와 사회사상을 공부하는 10주간의 교육과정입니다.

## 청년 콜로키움

청년학교 수료생들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의 열린대화모임 청춘멘토링, 독서세미나, 다큐세미나, 활동가특강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익콘서트

2011 청춘콘서트, 2012 어깨동무 콘서트, 2013년 새로운 백년 북콘서트 등 지역사회 청년과 시민들을 위한 공감과 희망의 열린 대화마당입니다. 멘토는 재능기부, 관객은 모금기부, 청년은 자원봉사로 전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 현장탐방

'교실에서 현장으로!'를 모토로 우리 시대의 이슈와 현안이 있는 사회현장을 월1회 방문합니다. 평화, 통일, 인권, 노동, 환경, 역사, 주거, 교육 등 대안을 모색하고 청춘액션으로 참여합니다.

##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해외탐방활동

복지국가, 통일코리아,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은 새로운 백년의 청사진이자 주춧돌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일코리아의 국가모델을 견학함으로써 통일 미래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워크숍, 통일독일탐방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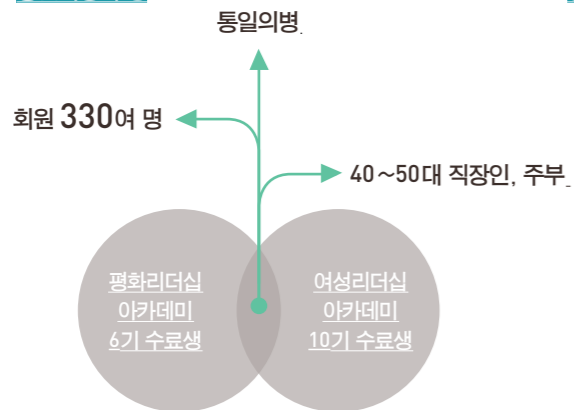


##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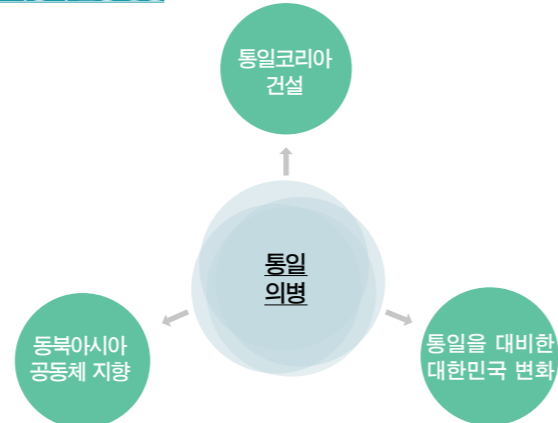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외병’(이하 통일외병)은 2013년 6월17일 창립했습니다. 올 2월15일 정기총회를 열어 소설가 김홍신 민주정치시민아카데미원장(전 국회의원)과 조성식 전 서울시 녹색산업협회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김명혁 목사님(세계복음주의협의회 회장)과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을 고문으로 모시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통일외병을 창립하게 된 계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위상 추락과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강대국의 영향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남북한이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려면 이념갈등으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는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 대화와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통일외병을 창립했습니다.

통일외병 구성



통일외병의 활동 방향



통일외병의 주요한 활동은 ‘통일시민학교’를 개설해 상·하반기 2기를 마쳤고, ‘걸으면서 통일한다(Walk is Oneing)’는 취지로 ‘통일누리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의 유적지와 백두산을 둘러보는 ‘동북아누리길’, 통일신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통일신라누리길’, 분단의 현장 ‘DMZ누리길’, ‘강화도누리길’, ‘3·1운동누리길’ 등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일 군사협정 대신 남북대화를! 통일로 가는 100만 좋아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면 한반도는 다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냉전의 화약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대결의 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열쇠는 ‘한미일 군사협정’이 아니라 ‘남북 대화와 협력’입니다.

그리고 통일외병은 수도권본부와 충청본부, 호남본부, 영남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10만 통일외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사람들

통일코리아를 여는  
평화재단의 약속



## 새로운 100년 통일코리아를 여는 평화재단의 약속

현재 한반도의 7천만 거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남북의 체제경쟁은 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에 충력을 기울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70여년간 지속된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천문학적 군사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었고, 냉전적 사고는 고착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파행, 국론 분열, 사회통제의 강화, 개인의 인권침해 등은 남북한 사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병폐입니다. 전 세계가 국경도 허물어가며 지역연합,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남북은 뚜렷한 국가발전전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중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국제정세에 맞서는 통일외교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치개혁도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나가려는 기존 정치권력을 재편하여, 민족 공동체를 통합해내고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도 남북이 군비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절대적 빈곤층과 남한의 사회적 약자층에 투자하는 복지 국가로 한걸음 다가서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급급한 북한은 물론, 남한도 기존의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통일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통일정책은 7천만 민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에서만 나올 수 있기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통일과 함께 국가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평화통일만이

분단 아래에서  
발전이 정체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한 새로운 나라,  
통일 코리아의 발전 모습





우리 민족의 유일한 비전임을 재천명하면서, 통일코리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자 합니다.

국가는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속한 성장주의나 국가주의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군사적 개념에 머물렀던 국가의 안보기능을 정치적 자유신장,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 경제 민주화와 불평등 해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정책과 구체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헌법 제정과 그에 따른 법개정에도 나서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다양한 통일 담론 형성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개인은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문화가 만연한 이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대립, 갈등, 부정부패, 권력 남용 등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통일이 한국 사회가 지닌 모순을 북한 사회에 확산하는 결과이어서는 안됩니다. 사회 구성원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선거와 시정 참여를 통해 분권과 지방자치를 몸소 익혀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들도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통일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 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사회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점검하고 대안적 사회질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체를 통합시키면서 통일코리아의 사회 운영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자층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복지 사회로 전환되어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혁신되어야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합에 더 적극

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방면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평화재단은 '국민통합위원회' 등 사회통합을 위한 모임의 실무지원을 지속해 나가며, 시민사회의 통일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재단이 통일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지 이제 열 돌이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큰 과업에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인류의 행복과 인권을 위한 국제 평화 단체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 평화논평

순번	발행일	키워드	제목	필자
제01호	06.05.15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제언	법륜
제02호	06.05.29		미국의 새로운 대북접근법과 6자 회담	조성렬
제03호	06.06.26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윤여상
제04호	06.07.17	북한 미사일 대포동2호 실험발사(2006.7.5)	유엔 대북결의안과 미사일 위기 국면, 어떻게 넘을 것인가?	조민
제05호	06.08.09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주정립
제06호	06.08.03		북한수해 예상밖 심각, 한국정부와 민간단체 긴급구호 나서야 한다	좋은벗들
제07호	06.08.19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주정립
제08호	06.08.24		대북포용정책의 재성찰	조성렬
제09호	06.09.11		왜 이 시점에 미국을 얘기 하는가?	길정우
제10호	06.09.28		중국의 동북공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명철
제11호	06.10.11		핵 국가 북한, 한국의 선택	조민
제12호	07.05.08	6자회담 '2.13합의문' 채택(2007.2.13)	남북관계, 출구론적 발상에서 벗어날 때	조성렬
제13호	07.05.30		BDA문제를 분석하면 북핵문제 해법이 보인다	구해우
제14호	07.06.25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자	노옥재
제15호	07.07.18		북한의 시장경제화 유감	동용승
제16호	07.08.10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져다 줄 도전과 기회	조성렬
제17호	07.08.20		남북 통합은 북한의 시장진입 기반 조성으로부터	박정원
제18호	07.08.23	북한수재피해(2007.8)	북한 재난과 참사, 복구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이용선
제19호	07.08.2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연구와 실행 시차 인정하자	백승주
제20호	07.09.10		북미관계 관망법	길정우
제21호	07.09.17		대북지원의 효율적인 방안 탐색	이금순
제22호	07.09.26		북 · 미관계 정상화, 개방, 그리고 북한인권	김수암
제23호	07.10.08	2차 남북정상회담(2007.10.2~4)	10.4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2중주	조민
제24호	07.10.15		10.4 공동선언과 평화체제의 남북 당사자주의	이경주
제25호	07.10.22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권문제의 전개방향	윤여상
제26호	07.10.30		이제 대북한개발협력기구의 발족을 준비해야	이용선
제27호	07.11.05		워런 버핏의 북한투자 전망을 새겨 들어야	백승주

제28호	07.11.15		사그러든 '북풍'과 한국 대선, 그리고 미국은?	길정우
제29호	07.1.121	두 번째 남북총리회담(2007.11.14~16)	총리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제	동용승
제30호	07.11.28	제62차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2007.12.18)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 북한의 태도와 효과	김수암
제31호	07.12.10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선거(2007.12.19)	대선 보이콧? 평화와 대선	이경주
제32호	07.12.18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정립의 필요성	윤여상
제33호	07.12.24	이명박 대통령 당선(2007.12.20)	남북관계의 발전은 법제도화에 못지않게 약속이행이 중요하다	박정원
제34호	07.12.31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거는 기대	동용승
제35호	08.01.21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제언	조성렬
제36호	08.02.18	뉴욕 필 평양공연(2008.2.26)	북핵, 오케스트라 선율을 타는가	조민
제37호	08.03.0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정성과 헌신성을 기대하며	윤여상
제38호	08.03.15	이명박 정부 출범(2008.2.25)	조정국면의 남북관계, 연착륙을 위하여	김학린
제39호	08.03.25		북한 식량사정 악화, 북한에 대량 아사자 발생이 우려된다	동용승
제40호	08.03.25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실용주의로 풀자	조성렬
제41호	08.04.10		최근 대두된 북한의 식량위기 진단	이영훈
제42호	08.04.14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4.9)	총선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희망	백승주
제43호	08.04.21	이명박 부시 한미정상회담(2008.4.19)	한미 정상회담이 알찬 열매를 맺으려면	조성렬
제44호	08.04.23		새 동맹선언에 한국의 전략가치가 반영돼야	백승주
제45호	08.05.06		대북인권정책 전략적 모호성인가? 전략적 유연성인가?	윤여상
제46호	08.05.15		대북정책 부재의 시대	양문수
제47호	08.05.19		남북한, 지금 양보한 측이 이긴다!	조민
제48호	08.06.05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티포뎛 전략을 본받아야	김학린
제49호	08.06.13		북한 식량사정 악화, 「한반도 평화비전」을 부활시키자	조성렬
제50호	08.06.17		'섬기는 정부'를 기대한다	동용승
제51호	08.06.23		북핵동포의 대량아사 참상, 급히 긴급구호에 나서야 한다	법륜
제52호	08.06.27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헌법정신	백승주
제53호	08.07.12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2008.7.11)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화위복	법륜
			계기로 삼아야	
제54호	08.07.19		초기조건을 고려한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	양문수
제55호	08.07.28		독도딜레마, 치밀한 연계전략 세워 대응해야	김학린
제56호	08.08.04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동용승



## 현안진단 주제정리

호수	발행일	키워드	주제
제01호	09.03.07		현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02호	09.06.11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5.23)	기रो에 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맞이하여
제03호	09.06.23	이명박 오바마 한미정상회담(2009.6.16)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
제04호	10.07.05	천안함 침몰사건(2010.3.26)	천안함 사건 100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05호	10.07.12	연평도 포격 사태(2010.11.23)	제 2의 7.7선언이 필요한 때다
제06호	10.07.26		평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 7.27휴전협정 57주년에 부쳐
제07호	10.08.19		다시 새기는 진정한 '8.15'의 뜻
제08호	10.09.01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2010.8.26~30)	미,중의 새로운 대북관계 모색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당대표자회 연기이유 및 정세토의, 9호 주제 토의
제09호	10.09.20		최근 북한의 대남유화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제10호	10.10.04		북한 노동당대표자회 독해법 Version 2
제11호	10.11.02		'2012년 이후'의 대외전략을 준비하자
제12호	10.11.12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제13호	10.12.02		연평도 사태와 평화의 길
제14호	10.12.17		위기의 한반도, 미중간 타협지점 정확히 포착해야
제15호	10.12.30		진정한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정상화로부터
제16호	11.01.14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제17호	11.01.31		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제18호	11.02.15		'통미봉남'을 두려워 말자
제19호	11.03.02	'아랍의 봄'아랍 세계 반정부 시위(2010~2011)	아랍 시민혁명교훈은 북한 '민심(民心)'잡기
제20호	11.03.22	도호쿠 대지진(2011.3.11)	일본 대지진과 핵 참사,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제21호	11.04.10		대북 심리전은 식량지원이 최선이다.
제22호	11.04.18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현 정부에서 매듭짓자
제23호	11.05.02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The Elders대표단 방북(2011.4.26~28)	카터의 방북 메시지가 없다?
제24호	11.05.04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제25호	11.05.26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2011.5.21~28)	5.24조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제26호	11.06.07		6.15 공동선언 11주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27호	11.06.13	반기문 UN 사무총장 연임(2011.6.2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기대한다
제28호	11.07.07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통일
제29호	11.07.19	북중 우호 조약 체결 50주년(2011.7.11)	북중동맹 50주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30호	11.07.26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2011.7.7)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아이콘으로
제31호	11.08.12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중 6자회담 남북대표 회담(2011.7)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청색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
제32호	11.08.30	북러 정상회담(2011.8.24)	급변하는 한반도정세, 새로운 '북방외교'가 필요하다
제33호	11.09.08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간곡히 호소함
제34호	11.09.24		금강산 관광 재개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하라
제35호	11.10.11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2011.9)	대북정책 유연성, 행동으로 보여라
제36호	11.10.27	이명박 대통령 방미(2011.10.11~15)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한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제37호	11.11.08		남북정상회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제38호	11.11.24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라
제39호	11.12.08		"이건 아니다" 2011년의 남북관계, 신뢰 상실을 구조화시켰다
제40호	11.12.30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2011. 12. 21)	지금도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다
제41호	12.01.07		2012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던지는 도전과 기회
제42호	12.01.23		통일문제를 국내정치로부터 해방시키자
제43호	12.02.09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0주년(2012.2.19)	도도한 통일에의 물길을 막을 수는 없다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0주년에 부쳐 -
제44호	12.02.21	북미 제3차 고위급회담(2012.2.23~24)	남북관계 관리? 셋길이나 큰 길로 가라
제45호	12.02.29	한중 탈북자 복송문제 두고 외교갈등(2012.2) 정부 UN 인권이사회에 탈북자 복송 문제제기(2012.2.27)	탈북자 문제, '문제'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제46호	12.03.22	광명성 인공위성 3호 발사(2012.4.13)	북한이 위성발사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제47호	12.03.3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	4.11 총선과 대북정책 방향, 개성공단에 답이 있다
제48호	12.04.21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2012.4.13)	자주 · 선군과 평화 · 경제의 기로에 선 김정은 정권
제49호	12.05.01		막장 남북관계의 득실, 민족성원 모두가 피해자다
제50호	12.05.16		차기 정부를 위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

제51호	12.05.31		중북(從北)논쟁으로부터의 탈출
제52호	12.06.21		탈북자 문제를 남남갈등에 엮어서는 안 된다
제53호	12.01.03		한·일 군사협정, 보류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제54호	12.07.24		시동 걸린 김정은 체제,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자
제55호	12.08.10		광복절 67주년, 상호불신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자
제56호	12.08.28		한·일 갈등을 동북아협력안보로 풀자
제57호	12.09.10		동북아시아 전환기,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
제58호	12.09.25		동북아 질서재편기의 유일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제59호	12.10.15		차기정부에서 한·미 대북정책의 조화를 기대한다
제60호	12.10.26		북방한계선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제61호	12.11.14	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으라
제62호	12.11.26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선출(2012.11.15)	시진핑 시대의 한중관계에 바란다 :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시진핑 총서기 선출에 부쳐
제63호	12.12.13	장거리 로켓 '은하 3호기' 발사(2012.12.12)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 격화소양(隔靴搔痒)식 대응은 이제 그만하자
제64호	12.12.24	박근혜 대통령 당선(2012.12.19)	새판짜기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와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제65호	13.01.03		남북의 최고지도자는 '민생'에서 접점을 찾아라 김정은 신년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66호	13.01.23		대북정책, '원칙'이 아닌 '좌표'가 중요
제67호	13.02.05		핵시대, 운명의 시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
제68호	13.02.19	북한 3차 핵실험 강행(2012.2.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부쳐
제69호	13.03.05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2.25)	'하면 된다'와 대북정책의 만남
제70호	13.03.19		휴전 60년과 개성공단 10년,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
제71호	13.03.29		우리의 시축(始蹴)으로 시작된 한반도 게임, 북한은 화답하라
제72호	13.04.16	개성공단 폐쇄 위기(2013.04)	개성공단 문제를 다룰 '원 포인트 남북회담'을 열라
제73호	13.04.30	박근혜 오바마 한미정상회담(2013.04.25)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를 풀자
제74호	13.05.13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달렸다
제75호	13.05.28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방중(2013.05.23)	'한반도 평화'의 의제를 선점하라!

제76호	13.06.09		탈북자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자
제77호	13.06.11	남북당국회담 무산(2013.6.12~13)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제78호	13.06.26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가야 한다
제79호	13.07.08	한중 정상회담(2013.5.27)	다시 열리는 대화의 문, 한·중관계 발전을 교훈으로 삼자
제80호	13.07.19		정전 60년, 평화가 간절하긴 합니까?
제81호	13.08.06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정화, 남북관계 안정이 급선무다
제82호	13.09.0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동시에 가동하자
제83호	13.09.12	개성공단 재가동(2013.9.16)	개성공단 찍고, 금강산 가는 길 찾기
제84호	13.10.07	북측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통보(2013.9.21)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다
제85호	13.10.28		북한이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야
제86호	13.11.11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제87호	13.12.02		대통령이 진짜 목과해서는 안 될 것들
제88호	13.12.17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2013.12.13)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제89호	13.12.27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제90호	14.01.08		3~4월 한반도 위기설과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제91호	14.01.24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통일대박론'(2014.1.6)	남(南)의 '통일대박'과 북(北)의 중대제안, 고장난명(孤掌難鳴)인가
제92호	14.02.10		'적극적 평화' 없이는 '통일대박'도 없다
제93호	14.02.25	남북고위급 회담(2014.2.12~14)	남북관계의 적극 개선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제94호	14.03.12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공개(2014.2.17)	평화, 교류·협력과 결합될 때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길이 열린다
제95호	14.03.31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2014.3.28)	통일은 현재진행형, 지금의 행동이 통일의 양상을 결정한다
제96호	14.04.18	북한 무인항공기 발견(2014.4.11)	'통일대박'에 앞서 '안보쪽박'을 막아야 한다
제97호	14.04.28	한미정상회담(2014.4.25~26)	한·미 정상회담과 대한민국號의 항로
제98호	14.05.14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제99호	14.05.27		외면 당하는 구조 요청 : 북한 억류자와 이산가족, 그리고 남북관계의 골든타임
제100호	14.06.25		한국외교의 재설계, '자기주도외교'를 펼쳐나가자



제101호	14.07.07	시진핑 주석 방한 (2014.7.3~4)	전략 선택의 고민을 안겨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제102호	14.07.14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성명 발표(2014.7.7)	남북관계를 더 이상 '조건'의 불모로 삼지 말자
제103호	14.08.23		남북 고위급접촉과 총리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자
제104호	14.09.02	2014 인천 아시안게임(2014.9.19~10.4)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근본변화가 필요하다
제105호	14.09.16		북한의 '특단 조치'만 바라다보는 옹색한 대북정책

08.05.13	제21차 전문가 포럼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08.06.24	제22차 전문가 포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동북아 국제관계
08.08.20	제23차 전문가 포럼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
08.08.26	제24차 전문가 포럼	제프리 루이스 초청강연회 :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전략과 북한비핵화
08.09.30	제25차 전문가 포럼	평화재단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주최 :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SERIES 1.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08.10.15	제26차 전문가 포럼	평화재단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주최 :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SERIES 2.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08.11.07	제27차 전문가 포럼	오바마 차기 미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진단한다
08.11.26	제28차 전문가 포럼	평화재단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주최 :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SERIES 3.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일 통일 전후의 경험
09.03.24	제29차 전문가 포럼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위기, 남북 경험 어디로 가는가?
09.04.14	제30차 전문가 포럼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09.05.26	제31차 전문가 포럼	북한 로켓 발사 이후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향방
09.06.26	제32차 전문가 포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위한 제안
09.09.29	제33차 전문가 포럼	한반도 정세, 대화국면으로 가는가?
09.10.15	제34차 전문가 포럼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09.12.22	제35차 전문가 포럼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0.02.09	제36차 전문가 포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10.03.16	제37차 전문가 포럼	화폐교환 조치 이후 북한의 상황 진단
10.04.20	제38차 전문가 포럼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10.05.27	제39차 전문가 포럼	미국의 중국 전문가가 보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외교정책
10.06.10	제40차 전문가 포럼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10.06.16	제41차 전문가 포럼	북한의 식량난과 대중국 의존
10.09.29	제42차 전문가 포럼	한국전쟁 60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10.10.05	제43차 전문가 포럼	미중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선택
11.04.06	제44차 전문가 포럼	주권과 인권, 서방의 리비아 개입의 딜레마 : 인도적 개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가능한가
11.04.19	제45차 전문가 포럼	신 양극체제와 한국의 선택
11.05.17	제46차 전문가 포럼	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본 중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5년
11.05.24	제47차 전문가 포럼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한반도 경제역학의 변화

## 전문가포럼

날짜	차수	주제
06.04.20	제01차 전문가 포럼	최근 조 · 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06.05.19	제02차 전문가 포럼	분단국가간 통합에 따른 법적문제 : 동서독 통일의 경험과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06.06.14	제03차 전문가 포럼	21세기 한국 외교안보의 새로운 구상 : 중급평화국가론
06.09.01	제04차 전문가 포럼	한미 FTA를 다시, 살펴보고 내다본다.
06.10.19	제05차 전문가 포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월급으로 살 수 있는가?
06.12.26	제06차 전문가 포럼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07.03.13	제07차 전문가 포럼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07.04.18	제08차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07.05.28	제09차 전문가 포럼	남북한 통일 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
07.06.18	제10차 전문가 포럼	평화변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의 방향
07.08.23	제11차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2)
07.09.04	제12차 전문가 포럼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
07.10.10	제13차 전문가 포럼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
07.10.24	제14차 전문가 포럼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 원효 · 최제우 · 함석헌 사상 중심으로
07.11.01	제15차 전문가 포럼	북한 경제의 변화 실태와 주민들의 삶
07.11.21	제16차 전문가 포럼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 방안
07.11.28	제17차 전문가 포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토대와 성분
07.12.12	제18차 전문가 포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08.03.19	제19차 전문가 포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새 정부의 외교 · 안보, 국방, 통일 국정과제를 제안한다(2)
08.04.15	제20차 전문가 포럼	2008년 북한 식량 위기 진단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원칙

11.06.14	제48차 전문가 포럼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 : 2010 중국 국방백서 중심으로
11.09.06	제49차 전문가 포럼	북핵 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1.10.11	제50차 전문가 포럼	심화되는 북·중·러 삼국의 협력관계 : 북방삼각의 복원 움직임인가
12.02.14	제51차 전문가 포럼	김정은 체제의 항방과 우리의 선택
12.03.20	제52차 전문가 포럼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북한의 도전과 과제 : 경제 강국 건설과 대중국 의존 심화의 딜레마
12.04.24	제53차 전문가 포럼	김정은 체제 어디로 갈 것인가? : 당대표자회와 '광명성 3호' 발사의 함의
12.05.22	제54차 전문가 포럼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 헤징 전략을 중심으로
12.09.18	제55차 전문가 포럼	흔들리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가
12.09.25	제56차 전문가 포럼	동아시아시대,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12.10.16	제57차 전문가 포럼	미국 대선 이후, 북미관계를 전망한다
12.11.16	제58차 전문가 포럼	통일·외교·안보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대선후보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13.03.19	제59차 전문가 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첫 단추가 중요하다
13.04.15	제60차 전문가 포럼	'중국의 꿈'을 향한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선택
13.05.14	제61차 전문가 포럼	한반도 안정화,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13.09.10	제62차 전문가 포럼	개선되는 남북관계, 이제 핵문제 해결이다
13.10.15	제63차 전문가 포럼	남북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의 관리, 그리고 평화
13.11.05	제64차 전문가 포럼	일본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14.02.18	제65차 전문가 포럼	김정은 3년,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14.03.19	제66차 전문가 포럼	통일을 위한 준비 :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4.04.15	제67차 전문가 포럼	유라시아의 지각충돌, 크림반도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4.05.21	제68차 전문가 포럼	역사로부터의 교훈 : 청일전쟁 120주년,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는
14.09.18	제69차 전문가 포럼	일본 아베정권의 행보와 북일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4.10.29	제70차 전문가 포럼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남북한 인권문제와 통일 준비

## 심포지엄 목차

날짜	차수	주제
05.11.15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06.07.11	2006 심포지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06.11.15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
07.06.19	2007 심포지엄	2.13 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07.11.15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한다
08.07.10	2008 심포지엄	건국 60주년, 통일 코리아를 바라보다
08.11.19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오바마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제안한다
		: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미 협력구상
09.06.23	2009 심포지엄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09.11.17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을 제안한다
		: 화해상생통일론 보고회
10.06.23	2010 심포지엄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10.11.16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포괄적 안보교환'을 제안한다
11.11.15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대북 정책구상과 전략 로드맵 :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상생 프로세스
12.06.19	2012 심포지엄	국가 비전과 통합적 통일정책 : 통일정책의 과제와 대안
12.10.31	창립 8주년 기념 심포지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방향
13.06.19	2013 심포지엄	한반도 핵 위험 시대와 평화의 조건
13.11.14	창립 9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
14.06.19	2014 심포지엄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
14.11.18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

## 기타 비정기 포럼

날짜	분류	주제
07.10.29	전문가 집중토론회	남북통일협정(안)을 제안한다 2
07.10.30	해외석학초청포럼	독일통일 이전 서독정부의 역할과 국제정세
08.11.14	전문가 집중토론회1	평화재단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주최
		루뎬거 프랑크(Dr. Ruediger Frank) 초청 간담회 : 한·독 한반도 전문가에게 듣는다
08.11.25	정책세미나	국회의원정의화 주최 평화재단 주관 : 대북인도적지원법 발의를 위한 정책 세미나



08.11.27	전문가 집중토론회2	평화재단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주최 올리히 볼름 &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초청간담회 : 한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09.05.12	초청토론회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초청토론회 : 오바마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10.09.30	긴급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북한 당대표자회 평가와 향후 전망
11.03.08	비공개 전문가 포럼	북 - 중경협이 실패와 향후전망
12.03.16	제1차 긴급 전문가포럼	중국내 탈북자 강제 복송사태, 그리고 쟁점
12.05.09	제2차 긴급 전문가포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
12.11.08	공동 전문가 포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평화재단 공동 전문가포럼 :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지역 협력
13.06.11	비공개 좌담회	미중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의 향방

## 평화재단 10주년 특별기획대담

회수	날짜	주제	사회자	대담자(안)
1회	7/09(수)	세월호 전과 후 :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조민	법륜스님 손봉호 윤여준
2회	7/16(수)	통일코리아, 21세기 세계속의 길을 묻는다	조민	법륜스님 최상용 임현진
3회	7/23(수)	또 한번의 도약, 통일경제를 말한다.	이영훈	법륜스님 손병두 이상만
4회	7/30(수)	분권과 자치 그리고 통일: '한반도 다(多)연방제 통일' 구상	조민	법륜스님 성경룡
5회	8/06(수)	통일코리아가 보는 민족의 100년사	김형기	법륜스님 이이화 박태균
6회	8/13(수)	통일, 북한 민심을 얻어라	고경빈	법륜스님 김영수 김○○(북한출신 전문가)
7회	8/20(수)	통일, 북한도 변해야 한다	고경빈	법륜스님 정세현 길정우
8회	8/27(수)	통일로 가는 평화안보정책	김형기	법륜스님 송민순 이근
9회	9/03(수)	기रो에 선 동아시아, 새로운 문명의 축인가 낡은 문명의 충돌인가	조민	법륜스님 김명섭 김성재

